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秋收)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 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民籍)이 없습니다.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人權)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貞操)나"하고
능욕하려는 장군(將軍)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겨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激憤)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化)하는 찰나(刹那)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

(나)

케케묵은 꿈 하나 여의고
당신, 당신을 꺼안고 울어봅니다

사내아이가 어찌 이리 눈물이 많은지
어른들은 한껏 꾸중을 늘어놓습니다

웃자란 풀대를 가위질하는
저 단정한 신사와 숙녀

그들의 애달픈 풀밭에 기울어
한 번 더 당신을 봅니다

창호지처럼 얇은 당신의 살가죽, 그 위에 ㉠흙터
그곳에 맞대어진, 나의 흙터

가위에 그이고 다시 붙은 살의 결합
그 아름다움에 울고, 가여워 울고

그래요, 꿈 하나 또 보자며 여의고
당신, 당신에 안겨서 울어봅니다

그러나 곧 당신은, 가야 한다며
이제 나가야 한다며 나를 세워두고

당신, 당신은 주인 없는 우산을 들고
갈라진 땅을 박차고 뛰어갑니다

아아, 당신은 가고 그들이 옵니다
이제껏 어긋난 것들을 제초하러 그들이 옵니다

- 이예준, 「비 오는 가뭄」 -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경어체를 사용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 ③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심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⑤ 공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자부심을 가지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와 상대를 매개하는 표식으로, 화자의 안도감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줌으로써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게 함으로써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상대를 봄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게 하는 대상이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화자가 지향하고, 화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존재인 동시에 화자에게 결핍을 안겨주는 존재로 해석되곤 한다. (가)에서 화자는 ‘당신’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모욕과 상실을 겪으며 사회의 관념과 법칙들이 부와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임을 깨닫는데, 그 순간 ‘당신’을 보며 극복의 의지를 가지게 된다. (나)에서는 개성적인 희망을 버리고 획일화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당신’이 화자를 위로하는 존재로 등장하나, 곧 ‘당신’은 화자를 떠나고 화자는 위기를 맞게 된다.

- ① (가)는 ‘당신’이 ‘가’고 ‘잊을 수 없’다는 진술을 통해, (나)는 ‘당신’이 ‘가야 한다’고 말한 후 뛰어가는 모습을 통해 ‘당신’이 부재하는 상황을 보여주는군.
- ② (가)에서는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는 말을 통해 화자가 겪는 모욕을, (나)에서는 웃자란 풀대를 ‘가위질’하는 ‘단정한 신사와 숙녀’의 모습을 통해 획일화를 강요하는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가)는 ‘윤리, 도덕, 법률’을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라고 표현하여 부와 권력을 정당화하는 사회의 관념과 법칙을, (나)는 ‘사내아이가’ ‘울음’이 많으며 ‘꾸중’을 늘어놓는 어른들을 통해 냉혹한 사회현실을 부각하고 있군.
- ④ (가)에서 화자는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등의 고난의 상황 속에 ‘당신을 보’며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군.
- ⑤ (나)에서 ‘당신’이 떠나고 ‘그들이’ ‘어긋난 것들을 제초’하려 온다는 진술을 통해 화자가 ‘당신’이라는 개성적인 희망을 버리게 되고 위기를 맞게 됨을 짐작할 수 있군.

정답:

32: 1

33: 5

34: 5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